# 대학생불자 위한 진우 스님의 '안심법문'

## 8월 6일,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서 청춘강연

### 연기 · 인과 · 중도 교리 설명하고 학생 150명과 본격 소통 나서 "즐겁고 괴로운 감정 바라보자"

공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삶에서 중요한 과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과제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지금을, 재충전을 위한 휴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50명의 대학생불자들과 마주앉았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 '스확행(스님이 알려주는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 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주최한 '영 부디스트 캠프' 마지막 날 펼쳐진 진우 스님의 청춘강연이다. 현직 총무원장이 대불련 캠프에 참석해 대학생불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불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불교에 무엇이 궁금한지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 대부분 법상이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아온 진우 스님은 이날만큼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앉았다. 스님은 본격적인 소통에 앞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마음가짐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했다. 평소 법문에서도 강조해온 연기와 인과, 중도가 그것.

진우 스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공식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적 감정인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고, 밀물이 들어온 뒤엔 썰물이 돼 나가는 현상과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없으면 즐겁다 할 것도 없다"며 "사람은 탓을 많이 하는데, 탓하는 대상은 연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쁘거나 평안해지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생불자들과 소통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진우 스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진우 스님은 연기와 인과에 대한 대학생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질의응답은 강연이 열리기 전 학생들이 스님과 불교에 대한 궁금증, 개인적인 고민을 종이에 적어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진행은 유정현 대불련 중앙회장이 맡았다.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진우 스님은 "자기 괴로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책을 읽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진우 스님. 스님은 "진부한 얘기지만 사회 탓, 부모 탓을 해봐도 기분 나쁜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진우 스님의 '인과법' 설명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즐거움도 느껴선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가지면 무언가로 즐거움을 느낄 때 집착하기보다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괴로울 때 역시 즐거움에서 온 인과의 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괴로움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혈기에 쉽진 않겠지만 즐거움을 즐기되 그것에 집착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학생은 행정가인 총무원장과 수행자인 스님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할 땐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그럴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답해 학생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스님은 이어 "슬기롭게 잘 살피겠지만 보통은 규범과 정의에 따라 선택한다"며 "무엇을 택하든 후유증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강연에서 연기와 인과를 이해해 대학생불자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밝힌 진우 스님. 스님은 끝으로 '무애자재(無碍自在)'를 강조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초기경전 〈숫타니파타〉를 인용해 "청년불자들이 불교를 접해 평안함을 얻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 천태종 신임 총무부장에 동강사 주지 시용 스님



천태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양구 동강사 주지 시용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은 8월 8일 시용 스님에게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시용 스님은 당연직인 금강신문(주) 사장 겸 편집인을 비롯해 종단 안팎의 주요 소임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시용 스님은 1984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천태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3급 중대사(重大師) 법계를 품수했다.

구인사 강원을 수료한 스님은 학업에도 매진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 경영학 박사학위를 잇따라 취득했다. 또 불교학박사 학위과정도 수료했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원광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강의전담교수와 겸임교수,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9월 18일

### 선출위원장에 정운 스님 8월 25~27일 후보 등록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선거가 9월 18일로 확정되면서 비구니회가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대 비구니회장 선출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회장선출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장선출위원회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집행부 3인, 운영위원회 임원 3인, 지회장 3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됐다. 선출위원장에는 정운 스님, 간사에는 비구니회 총무국장 설해 스님이 선임됐다.

선출위원장 정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는 12대 집행부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토대로 치르는 첫 선거로, 선거법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거 선거법이 제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선거는 위원 모두 각자 역할을 인지, 공명한 선거가 정착돼 비구니 선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에는 부회장 능인 스님과 총무부장 현진 스님, 총무국장 설해 스님이, 운영위원회에는 경북1지회 임대 스님과 서울지회 정목 스님, 강원지회 재범 스님이 활동한다. 지회장에는 인천지회장 일지 스님과 충북지회장 희원 스님, 경남1지회장 도수 스님이, 외부인사로는 회칙제개정위원장 정운 스님과 원로 · 명사추대위원 계호 스님이 위원을 맡았다.

이날 선출위는 △선거 일정의 건 △선거 세부 사항의 건 △단일후보의 경우 당선인 결정의 건 △선거 당일 세부 일정의 건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선출위원회는 회의에서 8월 17일 선거공고 후 8월 25~27일 후보 등록을, 8월 31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다. 선거 운동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며 회장 선거일은 9월 18일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태고종 "부산엑스포 유치 함께 기도"

### 총무원장 상진 스님 8월 7일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환담

부산시가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태고종이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7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 발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홍보부장 원심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등 태고종 총무원 주요 소임자와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마나 스님, 부산교구 포교원장 혜공 스님, 박형준 시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상진 스님은 무엇보다 부산 발전의 계기로 꼽히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불자들의 간절한 기원을 전했다.

상진 스님은 "전국 태고종 사찰은 현수막을 걸어 부산엑스포 유치가 이뤄지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 후원과 지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 쏟을 것을 다짐했다.

상진 스님은 특히 "태고종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해마다 서울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해왔다"며 "부산에서도 세계의 축제 속에 찬란한 불교문화의 향연을 선보이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교구 종무원장 마나 스님은 "불교는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함께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서도 역사 속 불교의 역할을 다시 일깨우고 국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쏟을 것"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스님과 신도들의 염원이 모여 부처님의 법력이 되고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K-불교명상 개발 위해 국내외 명상법 전수조사

### 조계종 미래본부, 4개월간 추진

명상 대중화를 위해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도심 명상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 미래본부가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8월 2일 개최한 명상프로그램개발연구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연구위는 명상을 현대적인 포교방법론으로 대중화하고, 사찰이 지역 명상센터로 자리 잡거나 종단 차원의 명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명상프로그램을 전수조사 하고, 단계적으로 분류해 대중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 국내외 불교 명상뿐만 아니라 타종교 명상, 비종교 명상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며 각 명상센터의 위치와 시설, 종교성, 운영방식도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윤호섭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임시총회 공고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입후보 등록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제13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8월 25일(금)~27일(일)
▶ 자격요건 : 본회 홈페이지 참조(www.kbhiksuni.org)
▶ 구비서류
1) 수행이력서 1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4) 취임 후 전국비구니회 운영계획서 1부
▶ 등록마감 : 2023년 8월 27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02)3411-8103~5, 010-8248-8103

전국비구니회 회장선출위원장 정운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 제17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금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전국비구니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기여해 주실 역량 있는 회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1길 56)
▶ 안 건 :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의 건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 전국비구니회 종무소
☏ 02)-3411-8103~5/010-8248-8103

※ 총회 참석 시 승려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선거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